

# 광주FC, '아시아를 향한 빛고을의 함성'에 응답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확보  
강기정 구단주 "적극 지원" 약속



광주시민프로축구단  
광주FC 선수단이 하나원  
큐 K리그1 2023 시즌 3  
위를 확정 지으며 창단 최  
초 아시아 무대 진출권을

거머쥐었다.  
이날 리그 2위 포항스틸러스를 홈으로 불러들인 광주는 이정호 감독이 사전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승리를 위해 달렸다. 이 감독은 경기 전 "선수단 분위기도 좋고 확실한 목적도 있다.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 진출해야 한다"며 "꼭 나가야 한다. 좋은 팀으로 발전하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골을 넣는 방법을 찾는 게 과제다. 연습한 대로 경기에서 잘 실현하고 있고 오늘도 상대를 잘 때려보겠다"고 했다.

경기가 시작되자 광주 선수단은 총력을 기울였다.

포항을 상대로 30개 슈팅을 쏟아 부었고 유효슈팅만 10개를 날렸다. 포항은 슈팅 4개와 유효슈팅 2개에 그쳤지만 양 팀 합쳐 경고 4장과 퇴장 1장을 받으며 승리를 향해 온몸을 내던졌다.

그러나 아쉽게도 득점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황인재 골키퍼의 슈퍼세이브가 수차례 나왔고 포항 수비진 역시 몸을 날려 공을 받아냈다. 저지된 슈팅이 무려 11개



광주FC 강기정 구단주와 노동일 대표이사, 이정호 감독 등이 3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포항스틸러스와 하나원큐 K리그1 2023 38라운드 홈경기에서 비겨, 리그 3위로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획득한 뒤 팬들과 '남행열차'를 열창하며 자축하고 있다.

에 달했고 두 차례 골대를 강타하는 불운도 더해졌다.

광주는 결국 무승부로 경기를 마치며 올 시즌을 16승 11무 11패(승점 59)로 마무리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다. 비슷한 시간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대구FC와 인천유나이티드의 경기가 1-2로 종료되며 최소 4위를 확보했지만, 울산 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고 있는 울산현대와 전북현대의 경기가 1-0으로 진행 중이었다. 전북이 막판 대역전승을 거둔다면 리그 4위로 떨어질 수도 있

는 상황이었다.  
경기장에는 침묵이 흘렀다. 팬들과 선수단 모두 아시아 무대를 향한 환호를 잠시 미뤘다. 3위까지 주어지는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진출을 위해 모두 마음을 모았다.

'아시아를 향한 빛고을의 함성'은 선수단이 경기장 중앙에 도열한 뒤 5분 여가 지나 터져 나왔다.

오후 4시 5분, 울산과 전북의 경기가 1-0으로 종료됐고 마침내 광주가 3위에 등극했다. 구단 역사상 1부리그 최고 성적은 물론 창단 처음으로 아시아 무대로 나아가는 순간이었다.

경기장은 환호와 눈물로 뒤덮였다. 선수단과 팬, 사무국 모두 아시아 무대를 향하는 광주의 발걸음을 축복했다.

오승수 광주FC 서포터즈 빛고를 고문은 "우리가 꿈꿨던 게 이뤄졌다. 아시아 무대에 대한 희망을 얻었는데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새 시즌과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플레이오프를 기다리겠다. 광주다운 축구로 아시아 무대라는 선물을 쥐 감사하다"고 말했다.

역사의 현장에 함께한 구단주 강기정 광주시장도 전폭지원을 약속했다.

강 시장은 경기 종료 후 "올해는 광주 FC 축구 원년의 해라 할 수 있다. 팬도 늘고 유료 관중도 늘었다"며 "광주시민들에 공격 축구로 즐거움을 줘 고맙다"고 했다.

이어 "내년에는 더욱 성장한 축구를 선보였으면 좋겠다"며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좋은 선수들을 키워내고 데려와서 화끈하고 즐거운 축구를 선보이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글·사진=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 광주 서구청 펜싱, 실업종별선수권 5개 메달

男 에베 단체우승...대미 장식  
김상진·이승현 각각 개인 은·동  
女 에베 단체 은·강영미 개인 동

'펜싱 명가' 광주 서구청 펜싱팀이 2023 한국실업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 금 1개 포함 5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시즌 대미를 장식했다.

광주 서구청은 지난달 22-24일 강원 양구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금 메달 1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이정환·김상진·김대안·이승현으로 구성된 서구청 남자펜싱팀은 이번 대회 남자일반부 에베 단체전 결승에서 경기 화성군청을 45-43으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김상진과 이승현은 남자일반부 에베 개

인전에서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추가했다.

김상진은 에베 개인전 결승에서 황태현(해남군청)에게 9-15로 석패하며 준우승에 그쳤고, 이승현은 에베 개인전 준결승에서 황태현에 9-15로 지며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최은숙·강영미·노선경·허다정으로 이뤄진 서구청 여자펜싱팀은 여자일반부 에페 단체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국가대표 강영미는 에베 개인전에서는 동메달을 획득했다. 강영미는 준결승에서 유단우(전남도청)에게 10-15로 패했다.

박광현 서구청 펜싱감독은 "김이강 서구청장과 서구의회 의원들의 지원이 사기 진작과 경기력 향상에 힘이 됐다. 내년에는 더 좋은 성적으로 서구청을 빛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체육상 유공자 포상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일 광주 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2023년 광주시 장애인체육상 시상식'을 열어 올 한해 동안 광주시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한 해를 마무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심철의 광주시의회 제1부회장 등 기관장과 경기단체 회장, 선수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10월 22-28일 열린 2022 항저우 장애인아시아인게임에 출전해 금 7·은 6·동 7개를 획득, 대한민국 종합 4위 달성에 기여한 '한국 장애인 탁구 간판' 서수연(37·광주시청) 등 광주선수단 14명(감독

1·코치 1·선수 12명)에 대해 포상금 수여식이 진행됐다. 지난달 3-8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대표 입상선수 시상도 열렸다. 올해 광주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한 관계자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장애인체육상 시상식에서 42명(체육진흥상 20·공로상 5·홍보상 1·자원봉사상 10·우수 및 모범직원상 6명)이 각 부문별 상을 받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애인체육회장은 "반도체육센터 건립 등 장애인체육 인프라 확충, 자치구 실업팀 창단 등 장애인체육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 소크라테스 '동행'... 파노니 '장고'... 산체스 '작별'

KIA, 보류선수 명단 공시



KIA타이거즈가 새 시즌을 앞두고 보류선수 명단을 공시한 가운데 외국인 선수들의 운

명도 엇갈렸다.

외야수 소크라테스 브리토는 이미 재계약 협상에 돌입했으며 투수 토마스 파노니는 재계약 희망을 남겼다. 반면 투수 마리오 산체스는 명단에서 제외되며 작별이 확정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달 30일 2024년 보류선수 명단을 공시했다. 10개 구단이 지난해(681명)보다 139명 적은 542명을 보류선수로 공시한 가운데 KIA는 54명을 명단에 포함시켰고, 산체스와 함께 이미 방출 통보가 내려졌던 고영창과 남하준, 박일훈, 송후섭 등 투수 5명이 제외됐다.

보류선수 명단에는 외국인 선수인 파노니와 소크라테스가 포함됐고, 자유 계약(FA)을 체결한 외야수 고종욱도 공시됐다. 지난달 22일 2024 KBO 2차 드래프트에서 지명된 투수 이형범과 내야수 고명성 역시 이름을 올렸다.

심재학 단장은 전남일보와 통화에서 "파노니는 재계약 여부를 확정하지 못해 일단 보류선수 명단에 포함했고, 소크라테스는 지난 시즌에 이어 꾸준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재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윈터리그 현장에 인력을 파견해 투수들을 살피고 있다"며 "연봉 상한으로



소크라테스 브리토



마리오 산체스

외국인 선수와 대리인들이 한국보다는 일본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이지만 접촉하며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목되는 부분은 외인 투수진의 엇갈린 운명과 소크라테스 재계약이다.

산체스는 광주를 떠나게 됐고 파노니는 현재 외인 시장 상황과 맞물려 장고에 돌입했다. 2년 연속 준수한 기록을 남긴 소크라테스는 KBO리그 3년 차를 준비한다.

산체스는 지난 7월 아도니스 메디나의 대체 선수로 한국 무대에 처음 발을 들여 12경기(11 선발·1 구원)에서 4승 4패 평균자책점 5.94를 기록했다. 구원형 투수로 기대를 모았으나 투구 폼 및 견제 동작

이슈와 체력 문제, 팔꿈치 부상 등이 겹치며 적응에 실패했다.

파노니 역시 지난 7월 손 앤더슨 대신 KBO리그에 복귀해 16경기(15 선발·1 구원)에서 6승 3패 평균자책점 4.26을 기록했다. 제구에 감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난해(평균자책점 2.72)보다 실점이 많았고 이닝 소화력도 부족했다.

소크라테스는 올 시즌 풀타임을 소화하며 142경기에서 타율 0.285로 20홈런 15도루 96타점 91득점을 생산했다. 타율은 지난해(0.311)보다 하락했지만 홈런과 도루, 타점, 득점 등 전반적인 공격 지표가 상승했다.

한규빈 기자